

# 일부 대학생의 흡연 실태와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및 행태 조사연구

## Research on the Smoking Conditions of College Students and the Behavior and Awareness of Oral Hygiene

문선정, 김한나, 구인영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Seon-Jeong Moon(saera-sj@hanmail.net), Han-na Kim(hanna0739@naver.com),  
In-Young Ku(kiy@ikw.ac.kr)

### 요약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알아보려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인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반 갑 미만이며, 흡연기간은 1년~3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과 주변 권유가 가장 높았고, 흡연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습관적 순으로 나타났다. 2.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중 1회 잇솔질 시간, 정기적 치과 내원, 최근 치과 내원시기, 치과 방문 목적, 스켈링 및 구강보건교육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중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흡연유무에 따른 흡연에 대한 인식 중 담배, 한 두 개피 정도의 담배, 식후의 담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흡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대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 구강건강인식 | 구강건강관리행태 | 대학생 | 흡연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oral hygiene and college students' smoking awareness. The survey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260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four-year universities located in Kyungbuk, Daegu, Gangwon-do. Collected data used the SPSS 17.0 to perform the frequency and cross-analysis. 1. The daily smoking amounts of less than half pack and the smoking duration of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3 years were to be the highest. The initiation of smoking was triggered by the curiosity and the proximal social environment. The reason of smoking was to relieve stress and habitual smoking respectively.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tooth brushing time, regular dentist visit, recent dental admission, the purpose of dental visits, scaling and oral health education.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awareness of oral hygiene in the subjective oral hygiene status.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awareness towards the impact of second-hand, after meal and one or two cigarette smoking. Based on the above results, smokers lack the awareness of smoking and oral hygiene compared to non-smokers. Therefore, the acti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the smoking and oral hygiene education targeting college students a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 keyword : | Awareness of Oral Health | College Students | Smoking | Status of Oral Care |

## 1. 서론

현대사회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 인간의 삶에서 음주, 흡연,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건강행태들인 생활양식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더불어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장(field)을 이루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2].

그 중에서도 단일 위험요인이지만 가장 많은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흡연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3].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성인 전체 흡연율은 20.2%이었으며, 남성은 39.0%, 여성은 1.8%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4]. 세계보건기구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매년 약 3백 5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매년 1천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담배에는 발암의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이 약 4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이 타르(tar)와 벤조피렌(benzopyrene),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디메틸니트로소아민(dimethyl-nitrosamine)이며, 니코틴(nicotine)과 페놀(phenol) 등이 종양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담배의 화학물질들은 흡연으로 인해 구강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구강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 해가 없는 착색이나 구취에서부터 치주병, 급성 괴사성 치은염, 백반증, 구강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구강질환 발생시키고 있다[6]. 특히 흡연은 치주질환의 중요한 원인 인자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양과 박[7]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치은염지수, 치태지수, 치석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흡연이 치은염을 유발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황 등[8]의 연구에서도 흡연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구강질환에는 치주질환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금연을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이 2010년 21.1세, 2011년 20.6세로 점차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4][9].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실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류 등[10]의 연구에서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윤 등[11]의 연구에서는 흡연 근로자가 비흡연 근로자보다 치주조직지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1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학생의 흡연 경험율이 높았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지식, 태도, 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모두 낮았다고 보고되었으며, 김 등[13]의 연구에서는 처음 흡연 동반자는 친구였으며,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흡연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이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발달과정에 있어서 성숙완료 단계에 있으며, 국가의 지적 재산이고 미래의 사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귀중한 인재이므로, 이들의 건강문제는 사회·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14]. 뿐만 아니라 대학생은 청년기에 속하는 집단으로서, 이시기의 건강행위와 생활습관이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자의 흡연 행태와 함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금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대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은 본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 후, 이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5]의 설문지와 문헌고찰[16-18]을 통하여 참고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잇솔질 관련 구강건강관리행태 6문항, 치과 관련 구강보건관리행태 5문항,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5문항, 흡연자의 흡연 행태 및 금연관련 9문항, 흡연에 관한 인식 4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흡연유무에 따른 구분에서 흡연자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과 과거에 흡연을 했지만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모두 흡연자로 간주하였으며, 비흡연자는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 3. 통계학적 분석

회수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행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흡연에 대한 인식, 흡연자의 흡연행태는 빈도분석을 통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보건관리행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흡연에 대한 인식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 III.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여자가 52.7%로 높았고, 연령에서는 20~22세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에서는 3학년이 34.6%로 가장 높았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	Division	N	%
Gender	Male	123	47.3
	Female	137	52.7
Age	20-22	127	48.8
	23-25	104	40.0
	26-28	26	10.0
	29-31	3	1.2
	Grade	Freshman	39
	Sophomore	79	30.4
	Junior	90	34.6
	Senior	52	20.0
	Total	260	100.0

### 2. 구강건강관리 행태

1일 잇솔질 횟수는 3번이 가장 많았고, 잇솔질 시간은 2분 정도가 많았으며, 잇솔질 방향은 위·아래로가 가장 많았다. 잇솔질 범위는 치아와 잇몸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아니오'가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 치과 내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치과내원 시기는 1년 이상이 많았고, 치과방문의 주된 목적은 치료가 높았으며, 스켈링 경험유무는 '예'가 높았고,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아니오'가 높았다 [Table 2].

### 3.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구강건강에 대한 생각의 문항에 흡연자군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59.4%이었고, 비흡연자군의 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33.1%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정기적 치과 내원에 대한 문항에서는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강건강이 다른 건강문제와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흡연자군의 경우 3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흡연자군의 경우 39.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는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치과라

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2. Oral health care

Item	Division	N	%
Frequency of toothbrushing a day	Once	8	3.0
	Twice	94	36.2
	Three times	113	43.5
	More than four times	45	17.3
Toothbrushing time	One minute	34	13.1
	Two minutes	127	48.8
	More than three minutes	99	38.1
Toothbrushing direction	Aside	53	20.4
	Up and down	82	31.5
	Roundly	57	21.9
	Rolling method	68	26.1
Toothbrushing range	Teeth	36	13.8
	Teeth and gums	22	8.5
	Teeth and tongue	106	40.8
	Teeth and gums, and tongue	96	36.9
Use of oral hygiene devices	Yes	60	23.1
	No	200	76.9
Smoking or not	Yes	106	40.8
	No	154	59.2
Regular dentist visit	Yes	74	28.5
	No	186	71.5
Recent dental admission	< 1 year	123	47.3
	1 year ≤	147	52.7
The purpose of dental visits	Regular dentist visit	65	25.0
	Scaling	30	11.5
	Treatment	142	54.6
	Etc.	23	8.8
Scaling experience	Yes	177	68.0
	No	83	32.0
Oral health education	Yes	117	45.0
	No	143	55.0

Table 3. Awareness of the oral health of non-smokers and smokers

Item	Division	Smokers	Non-smokers	p-value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Health	43(40.6)	103(66.9)	.000 <sup>*</sup>
	Unhealthy	63(59.4)	51(33.1)	
Regular dental visited necessity	Necessary	94(88.7)	142(92.2)	.334
	Unnecessary	12(11.3)	12(7.8)	
Importance of oral health	Very important	33(31.1)	60(39.0)	.582
	Important	39(36.8)	54(35.1)	
	Usually	32(30.2)	37(24.0)	
	Unimportant	0(0.0)	1(0.6)	
	Very unimportant	2(1.9)	2(1.3)	
Knowledge acquisition path	Dental	34(32.1)	72(46.8)	.058
	Mass Communication	27(25.5)	42(27.3)	
	Family or acquaintances	18(17.0)	17(11.0)	
	Internet	25(23.6)	20(13.0)	
	Etc.	2(1.9)	3(1.9)	

by pearson's chi-square test. \*p<0.000

#### 4.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한 두 개피 정도의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도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식후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 역시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반 갑 미만이 가장 높았고, 흡연 기간은 1년-3년 미만이 높았으며,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주변 권유가 높았다. 흡연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와 습관적이라는 경우가 높았고, 금연을 했거나 금연을 하고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가 높았으며, 금연교육프로그램 참여의향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다[Table 4].

Table 4. Smoking awareness and behavior

Item	Division	N	%
The impact of tobacco on health	Good effect	0	0.0
	No effect	13	5.0
	Adverse effect	247	95.0
The impact of one or two cigarettes on health	Good effect	343	1.2
	No effect	38	14.6
	Adverse effect	216	84.2
The impact of second hand smoking	Good effect	1	0.4
	No effect	13	5.0
	Adverse effect	246	94.6
The impact of after meal smoking	Good effect	11	4.2
	No effect	29	7.7
	Adverse effect	229	88.1
Smoking level a day	<0.5	50	47.1
	0.5≤	39	36.8
	1≤	14	13.2
	1.5≤	2	1.9
Smoking period	Under 1 years	10	9.4
	1~3 years	35	33.0
	3~5 years	30	28.3
	over 5 years	31	29.2
Smoking motivation	Curiosity	54	50.9
	Parents'smoking	1	0.9
	Solicitation of around	27	25.5
	Look smoking	3	2.8
	Etc.	21	19.8
Smoking reason	To relieve stress	42	39.6
	Interpersonal relation	14	13.2
	Habit	42	39.6
	Weight Control	2	1.9
	Etc.	6	5.7
No smoking period	Under 1 month	29	27.4
	1 month~1 years	31	29.2
	1~2 years	8	7.5
	2~3 years	10	9.4
	Etc.	9	8.5
	None	19	18.0
Smoking education program participation	Participation	48	45.3
	Absent	58	54.7

## 5.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행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하루에 이를 닦는 횟수는 3번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이를 닦을 때 걸리는 시간은 2분 정도가 높았으며, 잇솔질 시간은 흡연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잇솔을 움직이는 방향은 위·아래로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잇솔질 할 때 닦는 부분은 이와 잇몸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사용하고 있는 구강 위생용품은 '없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기적 치과내원은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아니오'가 각각 84.0%와 63.0%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최근에 치과에 내원한 시기는 흡연자군의 경우 1년 이상이 63.2%로 나타났고, 비흡연자군의 경우 1년 미만이 54.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4]. 치과방문의 주된 목적은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치료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스켈링을 받은 경험은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예'가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7].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흡연자군의 경우 '아니오'가 64.2%로 높았고, 비흡연자군의 경우 '예'가 51.3%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4] [Table 5].

## 6.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에 대한 인식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항에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나쁜 영향이 각각 90.6%, 98.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한 두 개피 정도의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항에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항에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식후의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모두 '나쁜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Table 6].

Table 5. Oral hygiene care statu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 terms of tooth brushing

Unit: N(%)

Item	Division	Smokers	Non-smokers	p-value
Frequency of toothbrushing a day	Once	5(4.7)	3(1.9)	.158
	Twice	43(40.6)	51(33.1)	
	Three times	45(42.4)	68(44.2)	
	More than four times	13(12.3)	32(20.8)	
Toothbrushing time	One minute	22(20.8)	12(7.8)	.003*
	Two minutes	53(50.0)	74(48.0)	
	More than three minutes	31(29.2)	68(44.2)	
Toothbrushing direction	Aside	24(22.6)	29(18.8)	.769
	Up and down	35(33.0)	47(30.5)	
	Roundly	22(20.8)	35(22.7)	
	Rolling method	25(23.6)	43(27.9)	
Toothbrushing range	Teeth	22(20.8)	14(9.1)	.067
	Teeth and gums	8(7.5)	14(9.1)	
	Teeth and tongue	40(37.7)	66(42.8)	
	Teeth and gums, and tongue	36(34.0)	60(39.0)	
Use of oral hygiene devices	Yes	23(21.7)	37(24.0)	.662
	No	83(78.3)	117(76.0)	
Regular dentist visit	Yes	17(16.0)	57(37.0)	.000*
	No	89(84.0)	97(63.0)	
Recent dental admission	< 1 year	39(36.8)	84(54.5)	.004*
	1 year ≤	67(63.2)	70(45.5)	
The purpose of dental visits	Regular dentist visit	14(13.2)	51(33.1)	.003*
	Scaling	16(15.1)	14(9.1)	
	Treatment	66(62.3)	76(49.4)	
	Etc.	10(9.4)	13(8.1)	
Scaling experience	Yes	64(60.4)	113(73.4)	.027*
	No	42(39.6)	41(26.6)	
Oral health education	Yes	38(35.8)	79(51.3)	.014*
	No	68(64.2)	75(48.7)	

by pearson's chi-square test. \*p<0.05

Table 6. Smokers and non-smokers' awareness of smoking

Unit: N(%)

Item	Division	Smokers	Non-smokers	p-value
The impact of tobacco on health	Good effect	0(0.0)	0(0.0)	.006*
	No effect	10(9.4)	3(1.9)	
	Adverse effect	96(90.6)	151(98.1)	
The impact of one or two cigarettes on health	Good effect	3(2.8)	0(0.0)	.000**
	No effect	29(27.4)	9(5.8)	
	Adverse effect	74(69.8)	145(94.2)	
The impact of second hand smoking	Good effect	0(0.0)	1(0.6)	.003*
	No effect	11(10.4)	2(1.3)	
	Adverse effect	95(89.6)	151(98.1)	
The impact of after meal smoking	Good effect	9(8.5)	2(1.3)	.000**
	No effect	16(15.1)	4(2.6)	
	Adverse effect	81(76.4)	148(96.1)	

by pearson's chi-square test. \*p<0.01, \*\*p<0.000

#### IV. 고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흡연율은 세계에서 높은 나라 중에 속하고 있으며,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어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9]. 대학생은 장차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귀중한 인적재산이며, 청년기시기인 지금의 구강건강 관리행태가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지식과 습관형성이 필수적이다[14].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흡연유무에 따라 분석하여, 대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행태에서는 1일 잇솔질 횟수나 잇솔질 방향, 잇솔질의 범위 등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지만, 1회 잇솔질 시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과 한[19]의 연구에서도 잇솔질의 올바른 방법과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빈도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박 등[20]의 연구에서는 비흡연군이 흡연군보다 평균 잇솔질 횟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흡연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21]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흡연자는 비흡연자 또는 금연자들에 비해 잇솔질 횟수 및 시기, 시간에서 관리 특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건강에 대한 신념이 금연자나 비흡연자보다 낮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흡연군이 타군에 비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유무는 흡연군과 비흡연군 모두 낮은 수치로 흡연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임과 윤[1]의 연구에서 치실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21.3%로 더 높게 나타났고, 최[22]의 연구에서는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대상자에게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기적인 치과내원과 스켈링 및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등 건강관리 행태에서는 흡연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임과 윤[1]의 연구에서도 정기적 구강검진과 스켈링 경험의 경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서 높았으며, 구강건강관리습관은 모든 항목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과 한[19]의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스켈링 경험 여부는 비흡연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설문에서 비흡연군의 33.1%, 흡연군의 59.4%가 자신의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흡연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치과내원의 필요성과 다른 건강과 비교한 구강건강의 중요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18]의 연구에서는 전체 국민의 1/3가량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2/3가량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치과방문의 주

된 목적은 치료 목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구강 상태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예방을 위한 행위에서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 50.9%이었고, 주변 권유가 25.5%이었다. 일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류 등[10]의 연구에서도 흡연 동기가 스트레스 해소와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동기와 흡연을 지속하는 이유를 미루어 보아 습관이 고착화되기 전에 흡연과 건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의 실시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연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김 등[14]의 논문에서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6.7%,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8.9%로 참여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반면, 본 연구의 금연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4.7%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흡연이 친구나 가족과 같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연프로그램 기획 시 개개인적으로 맞춰진 프로그램보다는 친구 등과 함께 그룹으로 지도한다면, 금연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될 것이며, 금연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흡연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담배나 한 두 개피 정도의 담배, 식후의 담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류[12]의 연구에서도 흡연 여부에 따른 인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 흡연자는 18.4점, 비흡연자는 19.9점으로 흡연자가 상대적으로 인지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 등[14]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

이고 있지 않은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젊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대학생들이며,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강원도에 재학 중인 일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자가진단에서 오는 오차가 있을 것이며,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과 과거에 흡연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모두 흡연자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오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흡연자를 좀 더 정확하게 구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강건강관리 행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흡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반 갑 미만이며, 흡연기간은 1년~3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과 주변 권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습관적 순으로 나타났다. 금연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은 참여하지 않겠다가 54.7%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중 1회 잇솔질 시간, 정기적 치과 내원, 최근 치과 내원시기, 치과 방문 목적, 스켈링 및 구강보건교육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중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유무에 따른 흡연에 대한 인식 중 담배, 한 두 개피 정도의 담배, 식후의 담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흡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임현주, 윤영숙, "D대학 체육관 이용 20대 성인의 흡연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특성 및 골밀도 비교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10권, 제6호, pp.1121-1128, 2010.
- [2] T. J. Butler, *Principles of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Wadsworth, 1900.
- [3] 신성례, 이동섭, 박정환, "다 학제간 접근방식을 이용한 생활금연 프로그램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제1호, pp.110-121.
- [4] 보건복지부,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11.
- [5] 강현숙, "여대생의 흡연에 대한 위험지각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pp.259-267, 2009.
- [6] 유미현,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논문집, 제10권, pp.449-468, 2004.
- [7] 양진영, 박경숙, "흡연이 구강환경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제1권, 제1호, pp.67-73, 2001.
- [8] 황지민, 김웅권, 조영식, 박용덕, "흡연원인 구강질환 관점에서 추계한 사회경제적 비용",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4권, 제4호, pp.613-620, 2010.
- [9] 이여진, 이군자, 김영숙, "인구학적,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이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303-311, 2011.
- [10] 류정숙, 김기은, 김진, "일부 군인의 흡연 실태와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3권, 제3호, pp.356-366, 2009.
- [11] 윤정숙,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근로자치주조 직병발생에 대한 흡연과 음주 및 매일잇솔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6권, 제2호, pp.197-207, 2002.

- [12] 류황진, "한 지역 고등학생의 흡연율과 흡연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지, 제9권, pp.107-128, 2001.
- [13] 김수진, 김미자, 이혜경, 임술현, 정순복, 최경희, 최미숙, "일 도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 정신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363-383, 1998.
- [14] 김신정, 문선영, 한경순, "일부 대학생의 흡연 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47-160, 2002.
- [15]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pp.10-13, 2006.
- [16] 김정숙, 정효경, 이종도, "흡연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치기공과 학생을 중심으로, 대한치과기공학회지, 제31권, 제3호, pp.35-45, 2009.
- [17] 김미정, 치과내원 환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및 실천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이정희, 구강보건 인식과 실천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9] 정미애, 한지형,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강관리 실태 비교 분석",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5권, 제1호, pp.65-72, 2003.
- [20] 박일순, 이선희, 윤혜정,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강환경 비교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8권, 제3호, pp.139-146, 2008.
- [21] 한경순, 흡연자의 치주상태 및 전문가치주관리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2] 최정민,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저 자 소 개

문 선 정(Seon-Jeong Moon)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구강보건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수료)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예방치학, 치주학, 구강해부학

김 한 나(Han-na Kim)

준회원



- 2012년 2월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치위생학사)
- 2012년 2월 ~ 현재 : 경운대학교(치위생학과석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

구 인 영(In-Young Ku)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구강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